

4-21-2024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 말씀: 누가복음 16:19-31

말씀 제목: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지옥을
만드셨을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드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곳으로 보내시겠는가? 말하면서 지옥은 없다고 자신들이 믿고 사는 것을 봅니다. 또한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들도 지옥은 무덤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서 잠자면서 소멸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용하는 성경 번역본들은 지옥이라는 말이 여러 군데 삭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통해서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셨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떤 비유도 아니고 실제 일어난 일에 대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한 사람은 거지였는데, 그의 이름은 나사로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생명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사람이 모두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맞은 편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 소리질러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서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그 두 사람은 죽어서 그들의 몸은 이미 무덤 속에서 썩어가고 있었을텐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부자는 지옥 불꽃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부르짖어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몸을 만드시고 콧구멍 속으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을 때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사람의 살아있는 혼들이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또 한 사람은 지옥 불꽃 속에 있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을 향해 부르짖어 말한 사실을 볼 때, 죽은 사람의 혼도 죽기 전 몸처럼 눈, 혀, 입, 손 등 모든 지체들이 있는 또 다른 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있는 곳은 지하 세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옥이 땅 속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은 현명한 자 위에 있으니, 그는 아래 지옥으로부터 벗어나리라.”

이 부자는 자신이 지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자신의 다섯 형제들에게 보내서 그들로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지만, 아브라함은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한다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외에도 신, 구약 여러 곳에서 지옥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진노 중에 불이 붙어서 가장 낮은 지옥까지 사를 것이며, 땅을 그 소산과 더불어 소멸할 것이며, 산들의 기초에도 불을 놓으리라.”(신 32:22)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시 9:17)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는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에 잠자리를 마련한다 하여도, 보소서, 주께서는 거기 계시나이다.”(시 139:8)

“지옥은 스스로를 확장하였고 한 없이 입을 벌렸으니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허영과 기뻐하는 자가 그곳으로 내려가리라.”(사 5:14)

“그러나 너(루시퍼, 마귀)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사 14:15)

“내가 그(마귀)를 구렁으로 내려가는 자들과 더불어 지옥에 던질 때 그의 떨어지는 소리에 민족들이 진동하게 하였으니 에덴의 모든 나무, 즉 물을 흡수한 레바논의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들의 땅의 아랫부분들에서 위로받게 되리라.”(겔 31:16)

“또 만일 너의 오른쪽 눈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네 지체 가운데 하나가 손상되는 것이 네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마 5:29)

“또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잘라 던져 버리라. 네 지체 가운데 하나가 손상되는 것이 네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마 5:30)

“또 너희는 몸은 죽일 수 있으나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차라리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마 10:28)

“그곳(지옥)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치듯함을 받을 것이며, 모든 제물이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막 9:48-49)

“하나님께서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 주어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으며”(벧후 2:4)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뭇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계 20:13-14)

예수께서는 자신이 지옥을 만드신 이유에 대하여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마 25:41)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신 것은 사람들을 위해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를 따르는 천사들을 위해 만드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늘에서 최초로 하나님께 범죄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세상에 나타나신 목적은 최초로 범죄한 후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첫사람을 유혹하여 죄 짓게 한 마귀를 지옥에 던져 멸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으로 죄를 짓기 때문이라.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곧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요일 3:8)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첫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 값을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모든 죄들을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어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도 지옥에 가서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

아멘! 할렐루야!